

# 청주에 茶·禪·食 박물관 들어선다



지난 12월 28일 열린 화장사 다·선·식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은 세미나 내용을 꼼꼼히 청기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의 전통문화이자 최고의 웰빙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선(禪)과 차(茶), 그리고 사찰음식.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은 최근 대(茶)·선(禪)·식(食)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청주 명양타워에서 불교계의 다·선·식 전문가와 충북도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건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다·선·식 박물관 건립 추진은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다·선·식 문화를 국민문화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장사가 사찰 땅 2천여평의 부지를 충북도에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화장사가 계획하고 있는 다·선·식 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건평 2900평 규모로, 투입되는 예산만도 150억원

## 화장사, 사찰 땅 2천여평 충청북도에 기증 체험·단기출가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

에 달한다. 이곳에는 차와 사찰음식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150평 규모의 공간과 800석 규모의 극장식 회의실 등이 갖춰진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차와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는 밥을 배울 수 있으며, 사찰음식의 재료가 되는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사찰 내 법당 및 야외 시설 등을 이용한 시민선방을 비롯해 경기 명상 등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청소년 수련회와 일반인 단기출가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다·선·식 박물관이 충북의 열악한 관광 자원을 개선하고 도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립박물관 형태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박경국 문화관광국장은 "화장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좋은 제안인 것만은 분명하며, 다·선·식 박물관이 건립되면 도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선·식 박물관 착공은 화장사가 건립과 운영주체가 되는 사찰 박물관 또는 도가 주체가 되는 공립박물관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 경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사 주지 무진 스님은 "다·선·식 박물관 건립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불교적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칭박물관무엇으로 유명한 화장사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주시내에서 가까운 언덕다.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회관, 청주동물원, 상당산성으로 이어지는 청주 최고의 관광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명우 기자** mwheon@buddhapia.com

## 2008년까지 원통보전 등 양양 낙산사 복원 본격화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양양 낙산사 복원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낙산사(주지 정법)와 양양군은 지난해 9월 동종 및 보호각 건립사업에 착수, 올해 6월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원통보전 등 소실된 전각들을 오는 2008년까지 완전 복구기로 했다.

낙산사와 양양군은 원통보전 발굴조사가 최종 마무리된 후 고증을 거쳐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무설전 등 9층의 전각과 담장, 조경시설 등 시설물 복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흥예문 누각 및 축대보수, 사리탑 보수 등 지방문화재 복구사업 등은 현재 설계승인을 받은 상태로 2007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해수관음전, 보타전, 의상전, 팔상전 등 비지정문화재도 낙산사가 자체적으로 복구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부산불교 연합회·신도회 합동신년하례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월 4일 오후 5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1부 문화공연에 이어 2부 신년하례법회 및 축하리셉션으로 이어질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덕 스님들과 각 종단 대표, 사찰 신도회 대표 및 임원, 신행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2006년 부산 불교의 서원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051)867-0501 천미희 기자

**대구경북 포교전진대회 열려**

2006년 대구경북포교사의 역량을 다지는 포교전진대회가 지난 12월 26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열렸다(사진).

동화사 주지 지성, 은해사 연수원장 해해,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과 양성홍 중앙포교사단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포교사는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 2부 국악축하마당으로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백장선원 사찰순례단 모집**

21세기 수행공동체를 표방하는 백장선원이 올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그 첫 걸음으로 월 1회 1사찰 순례단을 모집한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명찰을 순례하며 사

찰풍수와 문화재에 대한 특강과 답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함께 수행정진을 하겠다는 것. 1월 8일 첫 순례지는 지리산 백장암 백장선원과 실상사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90명. (053)744-0103 **배지선 기자**

## 34개 복지관에 휠체어 전달



광주 자비은행회(이사장 현장 스님)와 보성건설은 지난 12월 27일 자비은행회 강당에서 '2005 사랑의 휠체어 지원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사업에 선정된 34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에 총 103대의 휠체어가 전달됐다(사진). **이준업 기자**

## 청원 해운사 군부대 위문



충북 청원 해운사(주지 덕산)는 지난 12월 18일 제1보급창 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사진)하고 인기 연예인을 초청해 위문공연을 가졌다.

500여 장병들은 공연관람과 함께 동료들의 창작 공연 등을 즐기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덕산 스님은 "매년 하는 행사지만 장병들이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위문공연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장병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법회 참석 ‘쿠폰’으로 학용품 구입”

### 영남불교대 관음사 경산도량 어린이바자회 개최



지역(대구 고산초 5양은)은 동생 윤영(4)에게 과자를 사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종이지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우수연(대구 옥수초등 4학년)은 경산도량에서 구입한 물건이 제일 많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어린이법회 지도자 선정수 교사는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선물을 주기보다 어린이들이 성실히 출석한 댓가로 이벤트를 열어주니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지난 12월 24일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에서는 이색 바자회가 열렸다(사진).

법당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바자회장에는 연필 샤프 공책 크레파스 등 학용품들이 가득했다.

이날 바자회에서 통용된 돈은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이 발행한 500원, 1000원짜리 종이지폐. 어린이들이 법회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씩 받아 일년동안 모은 것이라 더욱 값있다.

법담을 설치하며 바자회를 기다렸다는 정

**광주 원각사 결식아동에 성금**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는 지난 12월 24일 원각무악 홀방에서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웃과 하나되는 연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 결식아동 돕기 자선모금 활동도 펼쳐졌다. 한편 원각사는 결식아동돕기 바자회와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 100만원을 광주 추장동사무소에 기탁했다. **이준업 기자**

## 부산 선양복지관, 실버타운 건립 추진

### 부지 마련 위해 큰스님 선사화展 열어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이사장 김수현)은 지난 12월 19일-29일 불교문화시설 '장원 불교의 집'에서 실버타운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실버타운 건립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 도자기, 손 조각으로 제작된 함, 다기, 경봉 스님, 화엄 스님, 탄허 스님 등 큰스님들의 선사화 등 5백여점이 전시됐다. 특히 28일, 29일 양일간 부산 수덕사 주지 법민

스님이 가훈, 달마도 등을 직접 그려주어 관심을 더 모았다.

이번 전시회는 '장원 불교의 집' 개원식과 함께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2004년 9월 소의 계층의 독거노인과 결손 아동 지원사업을 해 온 선양복지원은 올해부터 노인종합상담센터로서 한층 더 심화되고 전문화된 복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051)502-211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한점 한점에 정성 땀 가득

###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4~6일 작품전

장애인들의 정성과 땀으로 완성한 사진, 서예 한지공예작품 전시회가 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경주시법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종광)이 개최하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작품전시회'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경주 장애인복지관

'well-being club' 회원들의 사진작품 35점과 묵향 가득한 서예교실, 오색한지공예교실 회원작품 40여점이 함께 전시된다.

종광 스님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우리 장애인들께 감사하다"며 장애인들의 자아성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칼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대비법 요/배게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해

원인요를 오원통증 난치병 치해

02)782-0022

"당뇨로 인한 신경관과 기력이 쇠약해져서 항상 앉은 자세에서만 누워야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홍익대 안과 10년 경력의 안과 전문의

"10수년 넘게 신경 안통증을 겪어왔던 극심한 불면증/고열악에서의 발출. 밤새 푹~자도 거꾸로 고열악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관절염이 심해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배게를 쓰고부터 아파서 깨어나는 일 없이 좋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저는 두통과 요통이 다 사라져 수년간 무릎까지 느껴지던 세 몸이 낫았길 다행입니다." 전 40여명 100명만도 한명

신비한 손

#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天一氣功研究會** 경향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삼성종합화학(주) 한솔개발(주),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 등 수련지도

**수련생의 특징**

- ◆ 3박4일 코스 이수자는 중국심양중의학원 침구,推拿,안마 특별 자격증 연수교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비 혜택) (2월초 예정) **선착순 15명**
- ◆ 3차교육후 국내 4년제 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대체의학요법과정)
- ◆ 본회수련을 마친분 중에 관심있으신분 연락요망

천 일기 공 연구회

## 소백산수련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53기 - 1월19일 오후 2시 ~ 22일 12시

※ 매일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300페이지 값 10,000원

-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입니다.
-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 단계 수련: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방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병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된 분은 사기가 많은 분입니다. 3박4일 수련으로 얼굴빛이 흰하게 변합니다.
- ◆ 기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약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심, 졸음, 뇌진동,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 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